권번교육이 한국춤 전승에 미치는 영향

* 정 혁 준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권번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권번의 역사적 배경
2. 권번의 활동 현황
3. 권번 교육의 내용
Ⅲ. 권번 교육을 통해 본 한국춤의 계승양상
Ⅳ. 결론
참고문헌

*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논문투고일 : 2023.10.30 논문심사일 : 2023.11.01 게재확정일 : 2023.12.11

/Abstract

The effect of Kwonbun education on Korean dance transmission

Cheong, Hyuck-joon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early modern era is a time when court dance and folk dance as traditional dance change with the advent of a new era called modernity, and are in a position to change from traditional dance to modern d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dance, the traditional dance of gisaeng, which was mediated by Gwonb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romoted rapid develop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purpose of dance performance, performance location, and dance audience have changed, the dance of gisaeng, who were absorbed in dancing traditional dance in their own way and seeking a methodology, was sublimated into a dance with outstanding aesthetic form. The traditional dances we encounter today grew out of this very background.

As they moved from traditional society to modern society, the gisaeng's effort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tradition were very fierce amidst the historical situation of losing their home and stage of activity that they had experienc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ower of the new culture and new dance of the time. In the changing times and environmental changes, we can see that the beginning of modern dance preceded new dance from the efforts and activities of gisaengs who not only promoted the transmission of Jeongjae but also sought to create a new dance style that harmonizes Jeongjae and folk dance.

Currently, as the tradition of Gwonbeon continues after liberation, efforts are being made to transmit and disseminate traditional arts, with active activities and research taking place regarding traditional arts in general. Folk dance and court dance are taught to students through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through traditional arts education institutions from middle school to university.

The succession of this traditional culture was possible because of the strong national spirit and artistic pride of a group of traditional art artists such as Gwon Beon.

〈key words〉 gwonbun education, gisaeng, Jeongjae, folk da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주요어〉 권번 교육, 기생, 정재, 민속춤, 일제 강점기

I 서론

일제 강점기 전통춤은 궁중 춤과 민속춤이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맞아 변화하는 시기로 전통춤에서 근대무용으로 흘러가는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권번券番과 매개된 기생들의 전통춤은 공연 목적과 연행장소가 바뀌고, 관객이 바뀌는 상황에서 치열하게 전통예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기생들의 춤은 더욱 세련된 미적 형식을 갖춘 춤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선 시대 당·향악정재의 담당자는 모두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1910년 이후 전개되는 이른바 한국 근대춤 역사는 궁중 여악의 해체 후 열악한 환경에서 정재와 민속춤 등 전통예술을 지켜낸 기생들의 큰 업적이 지대함에도 1926년 등장하는 신무용으로 대체하여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성기숙, 1999:452).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홀대하던 잘못된 경향은 일제 치하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는 낡고 저급한 문화로서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할 문화라는 잘못 인식된 문화수용의 태도와 기생이라는 천민 계급에 대한 기피 인식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신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춤의 서구식 극장 무대화는 신무용가들에 앞서 이미 1900년대 기생들에 의해 실천되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권번 출신의 예인에 대한 연구나 지역 권번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전통춤의 근대 역사를 밝히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춤의 뿌리를 지키는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예인으로서 권번의 기생들과 교육제도는 다시 재조명하고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기조 속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이 개발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근대 예술교육의 형태를 갖추어 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무용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예술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기녀의 영향과 위치가 재평가 되어야 하며 전통문화예술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계층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문화가 소멸될 수 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에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예술 학교의 역할과 단순하게나마 공연 기획사의 역할을 통해 공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근간根幹이 되어준 권번은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널리 민중들에게 알리며 세련되게 발전시킨 예인집단임을 분명히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권번의 무용교육과 변천 과정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본 결과, 2001년 홍송화의 '기방춤에서 무대무용으로의 전이 과정 연구'와 류혜진의 '기방무용의 변천과정 연구'와 이재용의 '예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근대초기 한국춤 연구'와 2004년 안성희의 '권번 여기 교육 연구'가 있다. 홍송화(2001)는 예기조합을 통해 각종 춤과 연주가 기획됨에 따라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은 무대무용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며 그 변화에 따라 기방무도 오늘날의 한국무용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되었다고 논의하였다. 류혜진(2001)은 "선대가 남겨준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은 현재 우리에게 자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까지 전수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재용(2001)은 "1900년대 이전 음악과 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악樂'으로 존재했으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서 춤은 독자적인 예술로 자리 잡았으며, 여악의 폐지로 인해 민간에서 설립한 조선정악전습소와 기생조합, 권번이 함께 근대 초기 여악 문화를 관장하였다"고 밝혔다. 안성희(2004)는 "권번은 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악樂·가歌·무舞의 예능교육과 함께 교양과목과 예절교육을 중시시키는 통합교육을 하여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악에 가져다주는 의미는 권번을 통해 조선시대의 음악이 현재까지 전승되도록 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권번과 기생의 존재는 당시 시대적 환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족 전통문화예술을 지켜내며 더욱 발전시키고 꽃을 피워낸 예인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권번과 예인집단으로서의 기생의 업적을 토대로 권번이나 기방 무용에 대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단행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권번의 업적을 살피는 과정의 첫걸음으로 알려지지 않은 교육과 활동 면모를 통합적인 교육 내용을 고찰해봄으로써 권번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현재의 전통예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권번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권번의 역사적 배경

권번券番의 기원은 신라시대의 음성서音聲署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교방청敎坊廳에서 시작해 조선시대 관官에 의해 이루어졌던 여악제도女樂制度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교방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기녀들을 중심으로 한 악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조선시대가 되면서 서울은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있는 경기京妓와 지방의 교방청敎坊廳에 소속되어있는 외방여기外房女妓로, 이러한 여기들은 모두 교방청과 장악원에서 악가무의 기예를 익혔고 활동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여악女樂은 조선시대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었다. 성리학을 국시로 채택하여 세운 조선의 정치이념은 교화정치敎化政治를 표방했다. 교화군주敎化君主는 유교의 정치이론,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닦고 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이 원칙은 학문과 도덕을 닦아야 관료가 될 수 있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혈통에 의거해 통치자가 되는 군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교화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와 형벌보다는 예와 악을 우선시했으니, 정치와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면 법망만 피할 뿐,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선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예禮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공경손신恭敬遜愼을 근본으로 하고, 악樂은 사람 마음의 자연적인 조화로 중정화평(中正和平)을 위주로 한다”(김종수, 2001:36). 예에는 항상 악이 수반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에서 악공, 악생, 관현맹인, 무동, 여악 등과 같은 직업적인 음악인을 두었다. 악공과 악생은 연향宴享뿐만아니라 제례祭禮와 조의朝儀에서 활동하였으며, 관현맹인, 무동, 여악 등은 주로 연향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이러한 여악의 활발한 활동은 1900년대 일제통감부의 간섭 아래 정부 기구 개편에 따른 정비와 왕실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악의 궁중 행사의 식이 줄어들자 차츰 여기들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로인해 1905년에 여악이 폐지되었으며, 1908년에 태의원 및 모든 관기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악교육女樂敎育이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08년경 해체된 관기 중 일부 지방 출신의 기녀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경성에 남아서 그들의 예능 활동과 생계를 위해 기생조합 또는 예기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들이 익혀온 전통예술들은 궁중이 아닌 새로이 형성된 기생조합과 권번券番을 통해서 전승되었다"(안성희, 2004:12).

일제는 기생조합들을 경시청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기생과 창기의 공중위생과 풍기문란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기생조합들은 유녀조합 설립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에 신고해야 영업을 하게끔 만들었다. 일본 경찰은 기생들의 기업妓業과 예능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규제하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전통연희의 체계적 전승 통로를 감시하는 고도의 지배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는 예기조합에서 권번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물론 1945년 8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망으로 끝나게 되는 한반도 지배 기간 36년 동안에 걸쳐 자행되었다"(류혜진, 2001:65).

기생조합의 효시는 한성기생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관기官妓중심의 이른바 유부기有夫妓 조합으로 1908년에 설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자 황성신문에는 '기생조합성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는데, 여기서의 기생조합이 '한성기생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장유정, 2004:53).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생조합성립 박한영 등 삼십여인이 발기하야 한성내 기생영업을 조합하야 풍속을 개량하기로 목적하고 규칙을 제정하야 경청에 청원하얏다더라"(황성신문, 1908년 10월 27일자).

관기제도의 폐지로 관기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조양구락부가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1911년에 조선정악전습소로 발전하게 된다. 바로 조선정악전습소에서 학감 하규일이 사회로 나온 관기들을 규합하고 교육, 통제하기 위해 전습소에 분교실을 만들어 관기와 기녀들을 모집했는데 이것이 다동기생조합으로 권번의 효시曉示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908년 경시청의 통제하에 설립한 기생조합은 1913년 다동조합과 광교조합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고 그 후 일제의 감독과 간섭이 점차 심해지고 1914년 기생조합이란 명칭이 교방敎坊의 일본식 이름인 권번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조선권번이나 한성권번 등의 권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은영은 이 시기에 궁중정재는 "예악사상 중심, 왕조와 군왕에 대한 찬송 중심의 의식적 규범성에서 벗어나 화려한 춤사위와 복식, 그리고 순수 향유물로 점차 전환되게 되고, 또한 군무 중심의 형식성에서 독무 형식과 소인원의 춤 중심으로만 전승되면서 오락적, 예술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박은영, 2008:68)라고 하였다. 궁중정재가 대중적, 상업적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일제 말기 이르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잇따른 전쟁이 발발하자 경기 침체와 함께 큰 요리점을 중심으로 존속해 오던 기생들의 기업妓業도 쇠퇴일로에 놓여졌고, 이에 매개되어 있던 권번 또한 시들해져 갔다. 그러자 1940년대 들어 일본 경

찰의 명령으로 조선권번, 한성권번, 종로권번은 삼화권번으로 통합되었고 낙원동에 위치한 종로권번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권번의 인허가권에서부터 기생들의 기업 자격증 발급, 권번의 통폐합 등에 있어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일제 말기에 서울의 권번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8·15해방 이후에는 권번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지방의 권번은 국악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전통춤과 국악을 위주로 한 전통예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중앙은 국악협회로, 각 지방은 국악원으로 바뀌었다.

표 1. 권번의 전승

기 관	
중앙	국악협회
지방	달성권번-경북국악원
	동래권번-동래국악원-동래국악진흥원
	광주권번-광주국악원
	전주권번-전주국악원-전북도립국악원
	군산권번-군산국악연구회
	남원권번-남원시립국악연수원
	목포권번-목포국악원

(자료 출처 : 안성희, 2004:46 재인용)

권번 해체 이후 전통예술 활동을 하던 기생들은 각자 귀향을 하거나 특출한 기예를 지닌 일부는 국악인 또는 전통예인집단에 흡수되고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리 전통예술을 지키고 이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무용과 음악의 무형문화재 제1대 기능보유자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명무名舞, 명창名唱, 명인名人으로 성장하였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권번의 활동 현황

1913년 다동기생조합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기녀조합이 등장하게 되면서, 권번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었다. 초기 권번 시절의 분포현황을 1918년 조선연구회에서 발간한『조선미인보감』에는 일제시대 권번에 입적해 있던 기녀들의 기예와 소속 등의 간단한 이력이 쓰여 있어 그 당시 권번의 분포도를 알 수 있다.

1918년 당시 경성부에는 한성권번, 대정권번, 경화권번, 한남권번이 있었고, 지방에는 수원조합, 안성조합, 대구조합, 동래조합, 평양조합, 광주조합, 연기조합, 인천조합, 김천조합, 개성조합, 진남포조합, 창원조합 이상 12곳의 지방에 기녀조합이 있었다.

당시 경성부의 기녀들과 지방의 기녀조합에 소속된 기녀들의 수를 비교해보면 "경성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정권번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교조합의 후신인 한성권번이 175명으로 많았다"(손태룡, 2002:35).

기녀들의 연령분포는 가장 어린 기녀의 나이는 대정권번의 9세였고, 가장 나이 많은 기녀는 대구조합의 33세였다.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 14세부터 22세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16세부터 19세까지가 기녀들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다.

기생들은 연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자주 하였으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펼쳐졌다. 예컨대 〈음악무도대회〉, 〈기생조합연주회〉, 〈고아원 및 학원 후원연주회〉, 〈이재민구조연주회〉 등 다양한 타이틀로 공연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기생들이 권번에서 갈고 닦은 기예를 한 자리에 선보이고 일반에 공개하는 〈온습회溫習會〉가 단성사, 조선극장, 우미관 등에서 열렸고 이 대회는 기생들의 합동 발표회이자 일종의 경연대회 성격을 띤 행사였다.

권번은 전통예능의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기생의 출화出花에서부터 화대 지불까지 요리점과의 중간편리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었다. 기생들의 기업은 일본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서울의 경우는 본정서(중구서)와 종로서 관할이었다. 이에 따르는 각종 수속과 절차를 밟는 일 또한 권번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즉 일제강점기 권번은 전통예술이 교육되고 기생의 공연 활동을 하는데있어 업무와 기획을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권번은 전통예술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예기획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권번 교육의 내용

일제탄압이 깊어지면서 권번의 교육과목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고향으로 내려온 기생들에 의한 궁중정재와 일본어와 일본무용, 일본민요 등이 교육되기 시작하였다. 권번에서 가르친 교육 내용은 무용, 성악, 기악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으로 한문과 시문, 서예 과목인 서, 행서, 예서, 그림으로는 도화, 산수, 인물, 사군자 등을 배우고, 언어로써는 조선어, 일어 등의 교양과목을 배우고, 수신이라는 예절을 배웠다. 이 중에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예절로서 처음 입학하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중요시했다. 이처럼 권번에서는 단지 예능적인 기능을 위주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교양과목과 예절을 함께 가르치며 전인교육을 했으며 교육 체계를 갖춘 근대 교육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각 권번은 각각 짜여진 하루 일과표에 의해 수업을 받았는데, 그 예로 광주권번 일과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주권번 일과표

시간(시)	학습내용	시간(시)	학습내용
9–11	조회	13–15	일본어 학습
	예절교육	15–17	시조
	기악		창
	무용		단가
9–11	개별연습		한문
12–13	점심시간		습자

(자료 출처 : 안성희, 2004:41 재인용)

권번의 수업형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번의 기녀들은 보통의 여학교와 같이 오전에 등교하고 오후에 하교하며, 권번에서의 일정한 규칙과 시간표에 의해 지도하였다.

둘째, 권번에서의 수업 방식은 넓은 마루에서 단체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한 교실에서 무용과 기악, 또는 성악 등을 함께 가르치고 있었다. 이는 권번의 건물이 공간이 넓은 마루처럼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기녀들은 권번에서 배우는 기예 외에 자신이 더 필요하다거나 형편이 되면 스승을 찾아가서 일종의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수업할 때에 악보가 없이 구전심수口傳心授에 의해서 가르쳐진 교과도 있고, 조양구락부에서 만드는 악보로 전습소의 교사들에 의해 수업을 받는 교과도 있었다"(안성희, 2004:45).

권번의 춤 교육 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진주권번의 춤 교육 기간은 3년이었다. 교육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졸업시험을 치렀고, 기생들은 졸업시험에 합격해야만 소위 '놀음'을 나갈 수 있었다"(성기숙, 2005:108). 전라도 정읍권번의 경우 학습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길었다. 최소 5년 정도의 수련을 거쳐야 '놀음'을 나갈 수 있었으며 졸업 시험 제도는 없었다.

권번에서 가르친 춤의 과목은 〈표 3〉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 권번의 무용교육 과목

과목	종류
궁중정재	봉래의, 수연장, 오양선, 선유락, 사자무, 고구려무 헌천화, 무고, 검무, 항장무, 장생보연지무, 가인전목단 춘앵무, 학춤, 춘광호, 예상우의무
민속무	살풀이 춤, 승무, 한량무, 산향무, 공악무, 쌍승무, 입춤, 정자춤
창작무	남무, 정방별곡, 사고무
외국무용	서양댄스, 일본춤

궁중정재는 서울의 조선권번에서 22종류로 가장 많은 종류를 가르쳤고, 그 다음이 진주권번으로 12종류였다. 나머지 한성권번이 7종류, 평양기성권번이 6종류 그 외의 지방은 2종류를 가르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종로권번과 진주권번의 정재 종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종로권번에는 조선정악전습소의 정재를 담당했던 하규일이 교사로 그곳에서 궁중정재를 가르쳤기 때문이고, 진주권번은 고려 말엽부터 교방이 설치되어 조선말까지 교방을 중심으로 전통예능이 발달하였다고 전해지고 그 후 관기가 폐지되면서 자연히 권번으로 교방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많은 정재 춤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권번의 춤선생은 대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우선 첫째 장악원, 이왕직 아악부와 연계된 인물로써 이들은 주로 정재를 가르쳤다. 하규일과 장계춘, 박노아, 박성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당대 창우, 광대와 연계된 직업적 전문예인들로써 한성준과 이장선, 이창조, 신갑도, 박영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궁중여악의 해체 이후 낙향한 기생들이 고향의 권번 춤선생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노기老妓들이 춤선생으로 전업을 한 경우이다. “광교조합의 기생 조산월이 기생된지 15년에 즈음하여 가무 선생 노릇을 한 예나 진주권번의 최순이, 광주권번의 조앵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안성희, 2004:25).

Ⅲ 권번 교육을 통해 본 한국춤의 계승양상

여악제도가 폐지되고 세상에 밀려 나온 기생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춤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기생조합 또는 권번을 중심으로 전통춤 교육을 하고 공연 활동하며 근대 예술 교육기관으로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대와 현대를 이어주

는 근대 시기에 공연 활동을 했으며 선조들의 소중한 전통춤 자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기생들은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선 공연과 새로운 환경과 관객을 위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무대로의 도전이 있었다. 권번과 자신을 알리기 위해 중앙의 경연대회와 지역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명기로 널리 알려지거나 신문사의 행사나 지역 행사 참가, 해외 활동 등을 하며 라디오 방송 출연, 신문 지상에 자주 기사화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대중적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만들어 갔다. 그러기 위해 더욱 뛰어난 실력을 닦아야 했을 것이다. "권번의 교육을 받은 기생이 근대적인 의식과 활동으로 시대에 적합한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황미연, 2010:139)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며 스타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권번의 교과목에는 전통무용뿐만 아니라 외국 무용도 함께 배워서 춤사위가 세련된 선을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며 모든 음악적, 미술적 소양과 말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등을 통해 앞서가는 의식과 행동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생을 가르쳤다. 그것은 황미연의 연구에서 기생들 스스로 춘향의례를 주제하고,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교적 사회 관념으로 부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시대 기생들은 사회의 약자가 아닌 신분을 넘어서 유행을 선도하는 당당한 사회인이었다. "기생들은 학습과 생계를 보장해주었던 권번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중적 명성과 수익의 확보를 통해 기생의 대사회적 위치를 더욱 강화 시켜 나갔다"(황미연, 2010:236).

"신무용가 최승희, 조택원이 한성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성준은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기생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지역의 춤을 새로 배우기도 하여, 가르치고 배운 춤을 정리하여 민속무용을 집대성하였다"(홍송화, 2001:25). 명고수이자 춤선생이었던 한성준은 전국을 누비며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학무 등 춤을 가르쳤던 대표적인 전문예인 출신 선생이며 1세대 무형문화재 보유자 한영숙과 강선영을 키워낸 스승이다.

많은 1세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권번에서 춤을 배워 평생 춤 활동을 펼쳐왔고 다시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이어왔으며, 그 영향으로 현재는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춤이 계승되고 있다. 승무,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 진주교방굿거리춤의 김수악, 민살풀이춤의 조갑녀, 입춤의 장금도, 궁중무용의 정소산, 한성준의 제자 장홍심 등 대표적인 예인들이 있으며, 또한 궁중정재가 귀향한 기생에 의해 권번에서 교육되고 전해져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무용이 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궁중정재 무고가 동래 감영의 교방으로 전래되어 '동래고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가면동자무검희'라는 검무는 기생들에 의해 가면

을 쓰지 않고 각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다. 진주검무, 통영검무, 호남검무, 평양검무, 서울검무가 대표적이다"(김유미, 2003:22).

그림 1. 동래고무

그림 2. 진주검무

사진 출처 : http://www.google.com/search?q=동래고무, 진주검무

권번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며 각 지방의 국악원으로 전승되었고 권번에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의 전승을 살펴보면 현재에는 전통예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예술중. 고교와 대학 국악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 학년 별로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나누어 교육되고 있다.

표 4. 권번의 교육내용 전승 현황

권번의 교육내용 전승		
구분	국립	사립
중학교	국립국악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광주예고
대학교	서울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동국대,목원대,수원대,용인대,중앙대 단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양대,추계예대, 우석대,대구예술대,서울예대,청주대

(자료 출처 : 안성희, 2004:46 재인용)

단순한 민속무용이었던 전통무용은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를 거듭하던 권번 교육의 영향을 받아 다양성과 근대 예술로 발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Ⅳ 결론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지나온 현재에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자 했던 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권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권번이 근대 예술교육의 모습에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악·가·무의 예능교육과 함께 교양과목과 예절교육을 중시시키는 통합교육을 통해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했다는 점과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신분 차별의 고통과 전통문화 말살정책의 암흑같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변화에 맞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전통예술을 현재까지 전승되도록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전통예술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일본의 강점에 의해 겪어야 했던 삶의 터전과 활동 무대를 빼앗기는 역사적 상황과 당대 신문화, 신무용의 위력 속에서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기생들의 노력은 매우 치열하였다. 달라진 시대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정재의 전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의 근대적 활동과 대중적으로 넓혀 나아가기 위해 정재와 민속춤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춤의 양식 창출을 도모하였던 기생들의 노력과 활동에서 신무용보다 앞선 근대춤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해방 이후 권번의 기능이 각 지방국악원과 전통예술전문학교로 이어지면서 현재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연구와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전통예술을 전승하고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전통예술 교육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권번과 같은 전통예술 예인집단의 투철한 주체정신과 예술가적 자부심에 의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전통무용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분야의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권번과 같은 전통예술 예인집단의 전통예술 교육과 공연 활동에 대하여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며 전통예술 전승의 가교역할을 했던 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미(2004), “진주교방굿거리춤의 생성 기반과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종수(2001),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서울: 민속원.

류혜진(2001), “기방무용의 변천과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박은영(2008), “조선 후기 궁중·교방 정재 및 민속무용의 상호교섭과 변모 양상”,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한국문학과 예술 1**, 43-84.

성기숙(1999), **한국 전통춤 연구**, 서울: 현대미학사.

_____(2005), **한국춤의 역사와 문화재**, 서울: 민속원.

손태룡(2012), “대구지역의 기생단체 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46**, 49-83.

안성희(2004), “권번 여기 교육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재용(2001), “예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근대초기 한국춤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장유정(2004),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99-127.

홍송화(2001), “기방춤에서 무대무용으로의 전승 과정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황미연(2010), “전라북도 권번의 운영과 기생의 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2023.11.28. 검색.

Google.com 홈페이지, 〈http://www.google.com/〉, 2023.11.28. 검색.